



1 동정

- ▶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오는 1월 6일 오후 5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출판인 신년교례회를 연다.
- ▶ **이창무**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회장대행은 오는 1월 7일 오후 6시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2010 신년인사회를 연다.
- ▶ **이정춘** 한국출판학회 회장은 오는 1월 7일 오후 6시 30분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신년하례회를 연다.
- ▶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은 구랍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9회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 부음

- ▶ **안정용** 월간 인쇄계 발행인이 구랍 9일 별세했다. 고인은 40여 년간 월간 인쇄계를 경영해 오면서 인쇄산업의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거행된 제44회 잡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문화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 **김재구** 문성정보문화(주) 대표이사의 모친이 구랍 9일 별세했다.
- ▶ **장길호** 삼일전산정보(주)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해 11월 22일 별세했다.

3 화족

- ▶ **김충웅** (주)한성실업 대표이사의 장남 진우 군이 오는 1월 8일 오후 6시 30분 임피리얼밸리스호텔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서만석** 동아종합인쇄사 사장의 장남 호진 군이 구랍 12일 호텔인터블고에서 화족을 밝혔다.
- ▶ **강종선** 삼정문화사 사장의 장남 진용 군이 구랍 19일 한양동문화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이현양** (주)로알프로세스 사장의 차남 우교 군이 구랍 5일 63빌딩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이강식** 일화특수기업사 사장의 차남 재수 군이 지난해 11월 28일 알프스웨딩홀 서울뫼에서 화족을 밝혔다.
- ▶ **김근배** 현진디자인인쇄 사장 장녀의 장녀 시내 양이 지난해 11월 28일 압구정부페&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2010 인쇄인 신년인사회 5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강당서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 공동 주최의 '2010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오는 1월 5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문의 02-335-5881

인협, 인쇄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식 가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구랍 2일 인쇄문화회관 교육관에서 국고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인쇄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 홍우동 회장은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



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료식에서는 이진영(동원대 광고편집과) 학생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디지털인쇄과정과 수출전문가 과정도 각각 수료식을 가졌다.

인협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10일부터 한 달간 인쇄문화회관 교육관에서 인쇄수출전문가 양성과정, 그래픽이미지 가공과정(인디자인 편집), 디지털 인쇄 실무과정 등 3개 과목을 개설하고 무료교육을 진행했다.

인쇄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충원)는 구랍 1일 인쇄정보센터 4층 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한 업계 현안과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서울조합 사무용인쇄부회, 2009년도 정기총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사무용인쇄부회(간사장 이기섭)는 지난해 11월 25일 인쇄정보센터 7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기섭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수주물량 감소와 과당경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협업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사무용인쇄부회는 이날 총회에서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이어 간사장 선거에서는 이기섭 전임 간사장이 1년 더 연임하고 간사 선임은 간사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서울조합 전산정보부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전산정보부회(간사장 김원희)는 구립 2일 서교호텔 트리스트룸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조정석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상업·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 등 내빈과 부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원희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인쇄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회원사간의 단합이다”라며 “전산정보부회의 단결이 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석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위기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아 조합을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자생력 확보에 힘써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중심의 책임 있는 조합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4 이전

- ▶ 한성인쇄사(대표 김성중)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00-2로 이전했다.
- ▶ 소량(대표 홍석훈)은 최근 상호를 소량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8-33으로 이전했다.
- ▶ 에드윈(대표 김동숙)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18로 이전했다.
- ▶ 대승사(대표 유영권)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로 이전했다.
- ▶ (주)광문화인쇄사(대표이사 임성준)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2-1 구산드림타워 1002호로 이전했다.
- ▶ 월드그래픽(대표 유갈성)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20-18로 이전했다.

5 변경

- ▶ 국제전산품기계(대표 이해규)의 주소가 이번 변경으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길 312번지로 변경되었다.

성도GL / 성도솔루션 콘서트 관람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해 11월 12일 임직원들 간의 교류와 문화학습을 위해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는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클래식을 주제로 한 평일 콘서트로 어려운 클래식을 쉽게 해석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감성, 창의성, 서비스마인드, 예술성을 키워주어 고객,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인쇄공업조합연합회 회장 서울인쇄조합 방문

미즈카미 미츠히로 일본 전국인쇄공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인쇄정보조합을 방문하여 조정석 이사장과 1시간여에 걸쳐 환담을 나눴다.

조정석 이사장은 미즈카미 미츠히로 회장에게 “지난 동경 조합 방문 시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방문당시 제공해주신 ‘일본의 업태변혁’을 조합 소식지에 게재하여 조합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쇄업계도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만큼 일본 인쇄장비 업체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인쇄장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즈카미 미츠히로 회장은 “앞으로 인쇄산업도 환경 문제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 인쇄관련 단체가 긴밀한 협조로 양국의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인쇄센터, 인쇄전문가 초청 토론회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지난해 11월 25일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도 인쇄업계 CEO를 위한 새로운 인쇄기술환경과 경영전략 특강으로 '인쇄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하이텔베르그 김범식 대표(인쇄부문), 신구대학 오세용 교수(품질관리 부문), 명노삼 gmg 대표(CMS 부문), 엄일상 특허전문가(특허부문)가 참석해 인쇄업계의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각 부문별로 심도 깊은 조언과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서울인쇄센터의 신익재 교수가 담당했다.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6회 무역의 날 행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서 열렸다. 제46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인쇄업체로서는 고문당인쇄(대표이사 장선운), 타라TPS(대표이사 박우완)가 각각 1천만불 탐과 3백만불 탐을 수상했으며 에이스기계(대표이사 김경해)도 3백만 불탐을 수상했다. 현재 40여 개국에 은행권, 은행권용지, NID카드 등을 수출해 온 한국조폐공사(대표 전용학)는 3000만불 수출의 탐과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편 무역의 날은 수출의 확대,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업체를 매년 선정, 수출의 탐·정부포상을 수여해 왔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2009 송년의 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회장 이기훈)는 60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구랍 5~6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그린피아호텔에서 200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가수공연, 마술쇼, 치어리더 공연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노고를 서로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튿날인 6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해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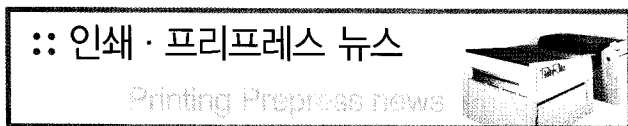
한국레이벌인쇄협회 송년회



한국레이벌인쇄협회(회장 김정진)는 구랍 10일 서울인쇄정

보센터 7층 강당에서 2009년 송년회를 가졌다. 3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회에서 김정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어려움 속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레이벌산업은 그 역사가 오랜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동방사의 박삼도 회장은 현재 집필 중에 있는 ‘레이벌산업발전사’ (가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고 뿌리 깊은 레이벌인쇄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줄 것과 레이벌업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고문당인쇄, 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고문당인쇄(주)(대표 이사 장선운)가 지난해 11월 30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주관 제46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시상하는 천만 불 수출의 탑과 한국무역협회장이 수여하는 무역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고문당인쇄(주)는 2001년부터 해외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국내 250명, 해외 650명 등 총 900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며, 각 처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인쇄, 박스, 펄프쿠션, 라벨 등을 직접 개발, 생산, 납품해 오고 있다.

장선운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에서 “단순한 생산을 통한 납품이 아닌 고객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해 온 고객가치창조의 노력과 좁은 국내를 벗어나 넓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적 마케팅 강화를 통해 회사 창업 50년이 되는 3년 뒤인 2012년에는 매출 1천억 원 달성이 충분히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문당인쇄(주)는 현재 중국, 베트남에 이어 조만간 인도와 동유럽권 해외 공장 관련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우에드컴, 온라인 POD서비스 MOU 체결



(주)성우에드컴(대표 이민성)은 (주)틸론(대표 최백준)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대중화와 온라인기반 POD(주문형출판)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서 양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엘클라우드(www.elcloud.com)’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주문출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양사간 지속발전 가능한 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했다.

‘엘클라우드’는 틸론 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사용자 PC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넷북 등을 통해서도 개인맞춤식 컴퓨팅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이미 틸론의 가상화 솔루션은 중견기업에서 굴지의 대기업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 사이트에 적용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HP, ‘HP 지식 커뮤니티’ 사이트 개설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HP 지식 커뮤니티’를 새롭게 개설하고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HP 고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HP 지식 커뮤니티’는 HP 제품 사용자 간의 기술 지원과 지식 공유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소비자들은 프린터 및 복합기, PC관련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설치 및 사용 방법, 제품 정보 등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홈페이지_www.hp.co.kr/support/hpcommunity

한국코닥, 컬러 트랜스프로모 세미나

한국코닥(대표 루이스 레벡)은 구랍 4일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국내의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관공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컬러 트랜스프로모의 전망과 이점(Color TransPromo the future and the benefit)'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코닥 이수범 상무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코닥 아시아태평양 우찌다 테츠오 디지털프린팅 마케팅 매니저가 트랜스프로모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전망에 대한 내용을, 2부에서는 한국코닥 디지털프린팅솔루션 사업부 신승연 팀장이 코닥의 트랜스프로모 솔루션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코닥의 디지털프린팅솔루션 사업부는 이미 대형 풀컬러 잉크젯프린팅 시스템을 국내에 공급하여 트랜스프로모 시장을 선도, 상업인쇄사, 학교,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 왔으며 연속잉크젯(Continuous Inkjet) 기술 기반의 '버사마크(Versamark)' 솔루션도 다양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코닥의 루이스 레벡 대표는 "코닥은 이미 이미징기술과 재료과학에 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인쇄)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 특히 잉크젯사업 분야는 이미 40년간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코닥은 최근 최저비용으로 오프셋품질과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는 스트림(Stream) 테크놀로지 잉크젯 기술을 시장에 선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업에서도 부담없이 풀컬러 트랜스프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는 출판업계 고객을 위한 특별이벤트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를 결정했으며 아그파가 추구하는 최첨단 제품과 토털 솔루션을 고객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그파코리아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을 위한 전문적 노하우와 전문기술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진PMS, 제2회 장학금 수여식



일진PMS(대표 박경재)는 구랍 17일 일진PMS 사무실에서 제2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2007년 이후 2년 만에 거행된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 대해 일진PMS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인쇄업계가 어렵지만 업계의 미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 김동진, 중부대학교 인쇄미디어학과 천효빈, 신구대학 그래픽아트미디어과 장영운 학생이 이번 장학금을 수여받는 영예를 받았다.

아그파코리아, 서울매거진페어 참가



아그파코리아(대표 권순기)는 구랍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서울매거진페어에 특별 참가해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다. 아그파코리아의 관계자

성도GL/성도솔루션, 마케팅 뒤집어 보기 교육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구랍 1일 "마케팅 뒤집어 보기"라는 제목으로 전 임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객관점에서 본 마케팅의 현주소와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성도GL/성도솔루윈은 앞으로도 교육과 제도를 통한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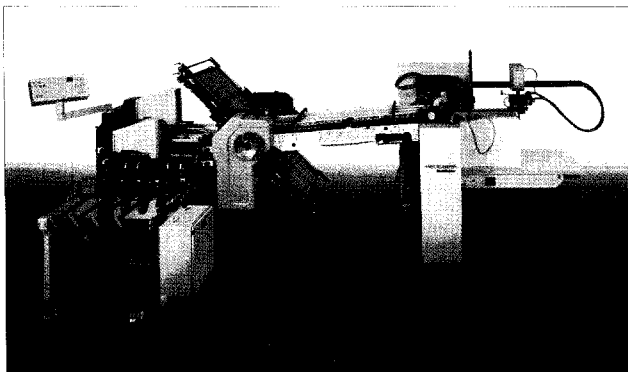
성도GL/성도솔루윈, JANPS 2009 참관



(주)성도GL/(주)성도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일본에서 개최된 2009 JANPS에 참관하여 최신 정보 습득 및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문사 고객을 초청하여 함께한 JANPS 2009는 신문제작 관련 전시회장에서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아비코 공장과 아사히신문사를 방문하여 CTP 프로세스를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도GL/성도솔루윈은 “이번 JANPS 2009를 통해 이뤄진 네트워크 및 선진기술 습득은 향후 비즈니스의 성과 창출에 큰 시너지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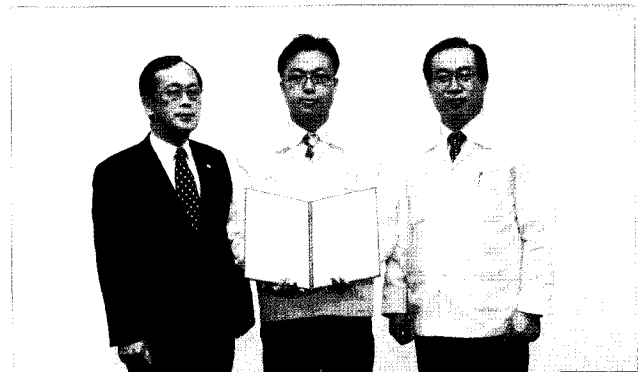
명함천국, 스타점지기 KHC 66 1호기 설치



한국하이텔베르그(주)(대표 김범식)는 최근 국내 판매를 시작한 스타점지기 모델 KHC 66 국내 1호기를 명함천국(대표 홍제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스타폴더 KHC 66은 칼타입의 접지기로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지기 모델로 경제성을 위해 필수적인 스펙만을 장착, 간단하면서도 구동이 편리해 소량 다품종에 적합한 접지기이다.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도록 지난 2006년 중국 상해의 썩푸(Qingpu)에 설립된 스타 접지기 중국 공장에서 조립하고 있다. 썩푸에 위치한 공장은 아시아 대륙 내 하이텔베르그 그룹의 첫 번째 공장으로 독일에서 제작된 하이텔베르그 스타 접지기의 우수한 내구성과 정확성, 고품질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썩푸 공장의 전체 시스템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다. 접지기 조립부품의 대부분을 독일 스타에서 직접 제작하여 수입해 조립 하고 있으며, 독일 생산품질관리 인원들이 상주하면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전체 라인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하이텔베르그는 이 같은 철저한 관리로 생산성과 접지물 품질에 관해 기준에 독일에서 생산되는 접지기와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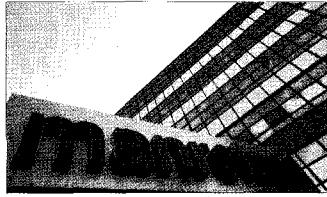
신도리코, 적십자사와 헌혈약정 체결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구랍 1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 약정식을 갖고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헌혈 약정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도리코는 헌혈 약정과 함께 표희선 사장을 비롯하여 서울 본사 직원 7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희선 신도리코 사장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피를 나누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며 신도리코의 기업정신인 나라사랑, 직장사랑, 사람사랑의 삼애정신에도 부합되며 앞으로도 헌혈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로랜드코리아, 송년회

만로랜드코리아(대표 이사 케네스 엠 한센)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랍 11일 2009년 송년회를 가졌다.



케네스 엠 한센 회장은 정밀성, 신뢰성 및 효율성에 집중, 만로랜드 고객이 항상 집중하여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Reliable', 고객의 혁신적 투자 결정에 조력하여 고객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개척적인 'Groundbreaking',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단호하게 과감하게 도전해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만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결단성 있는 'Determined', 시장이 어렵더라도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인쇄매체의 기술성, 경제성, 창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고무적인 'Inspirational'의 4대 핵심가치를 강조하면서 2010년은 이 모든 핵심 가치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항상 염두하고 업무를 수행하자고 말했다.

특히 2009년의 성공과 실패는 2010년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2010년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이기에 새로운 각오로 2010년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한국 HP, RPS센터 오픈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여의도 HP사옥 로비에 이미지 콘텐츠 출력 서비스인 '리테일 퍼블리싱 솔루션(RPS: Retail Publishing Solution)' 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HP 리테일 퍼블리싱 솔루션(RPS)은 HP의 다양한 프린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라이선스가 있는 이미지 콘텐츠를 출력, 상품화하는 비즈니스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제작하는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HP는 RPS 센터를 통해 HP가

제공하는 라이선스 이미지 콘텐츠, 일반사진, 포토북, 사진첩, 초청장, 포스터, 배너, 달력, 포스터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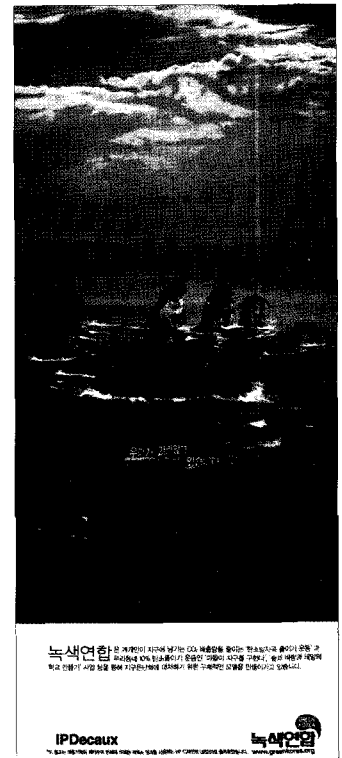
한국HP, 녹색연합 친환경 캠페인 협력 지원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친환경 캠페인 포스터 및 거리 사진전 작품을 HP의 친환경 라텍스 잉크로 출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HP와 친환경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손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프린팅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한국 HP는 녹색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CO₂ 배출량 절감을 주제로 한 '우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친환경 캠페인 광고 포스터를 서울 소재 버스 쉼터 100여 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조태원 부사장은 "한국HP는 지구 환경 수호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녹색연합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잉크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친환경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HP, 전문 상업용 디자인젯 T시리즈 3종 출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건축, 대형 도면, 그래픽, 맵, 프리젠테이션 등의 전문 상업용 프린팅 시장을 겨냥한 'HP 디자인젯 프린터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디자인젯 시리즈는 ▲P 디자인젯 T620 프린터(24인치) ▲P 디자인젯 T770 프린터(44인치) ▲P 디자인젯 T1200(44인치) 프린터로 총 3종이다.

디자인젯 프린터 3종은 정교한 세부 표현으로 이미지 전달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HP디자인



젯 6색 잉크 프린팅 시스템에 포함된 HP 비베라 잉크는 정밀하고 생생한 컬러 표현력과 빠른 건조, 번짐을 방지하는 잉크 기술로 디자인 출력에 가장 완벽한 출력 품질을 자랑하며 최소 0.02mm 라인까지 세밀하게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건축 도면 및 그래픽, 지오그래픽 이미지뿐 아니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포스터 등을 사내에서 직접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장 조태원 부사장은 “최근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건축, 대형 도면, 그래픽, 맵 등의 전문 상업용 프린팅 시장에서는 정밀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프린터에 대한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HP는 프린터 업계의 선두기업으로써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키프린팅, 절전형 LED 디스플레이 개발

오키프린팅솔루션(한국오키시스템즈 대표 유동준)은 구랍 8일 전력소모를 기존 LCD의 1/10로 줄인 1.1인치 QVGA(Quarter Video Graphics Array)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EFB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LED 프린트 헤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키가 개발한 기술로 이 기술을 적용한 프린트 헤드는 기존 LED 프린트 헤드보다 약 두 배의 LED 빛을 더 발산할 수 있어 고품질의 인쇄가 가능하다. 기존 프린터에 비해 전력 소모를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지난 2008년 일본 경제산업성(METI) 수여하는 ‘뉴 머시너리 프로모션 어워드(New Machinery Promotion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유동준 대표는 “20년 넘게 쌓아온 LED 프린팅 전문성을 활용해 전사적 차원에서 LED 관련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신인팩, Luxe-pack 참가



(주)태신인팩(대표이사 서명현)은 최근 고급 포장재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모나코에서 열린 ‘Luxe-pack (Monaco)’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Luxe-pack에는 국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동사는 인쇄물의 변형이 없는 Cold-Foil Stamping 기술과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특수지, 향의 지속력이 우수해 상온상태에서 4~5년이 지나도 보존되는 향인쇄 기술(특허 제 0316559호)을 선보였다. 특히 Cold-Foil Stamping과 향인쇄 기술은 로레알, 랑콤, 입생로랑, 알마니 등의 세계 유수 화장품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Luxe-pack 박람회는 화장품, 와인, 보석 등 최고급 포장재 분야의 업체들이 참가하는 박람회로 모나코, 뉴욕, 상하이에서 매년 열리는 고급 패키지 전문 박람회이다.

태신인팩 관계자는 “모나코는 일반업체에서 참가하기 어렵기에, 2008년부터 뉴욕, 상해 전시회에서 평가를 거쳐 Luxe pack의 원류인 모나코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계 우표디자인 공모대회 시상식

2010 세계 우표디자인 공모대회 시상식이 구랍 9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에서 열렸다. 최우수상은 청소년 부문에서 홍콩의 왕훙람 군이, 일반 부문은 나용순 씨가 차지했다.

왕훙람 군은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공모 주제에 맞춰 자원재활용, 대중교통 이용 등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화분에 담겨진 꽃에 표현해 청소년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일반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나 씨는 ‘한국 방문의 해’ 주제에 다양한 태극문양과 색깔로 익살스러운 얼굴 표정을 표현해 한국에 대해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출판뉴스
Publishing news

'법전' 전시회, 김남수 사장 감사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전(法典)'이란 용어를 사용한 현암사의 '법전'이 출간 50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국회도서관에서 법전 50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1959년 발간된 현암사의 '법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으로 매년 빼놓지 않고 개정 증보판을 내 온 것을 기념해 '법전' 53권과 외국 법전, 소형 법전, 해방 직후 시사종합지 '건국공론' 등 70여권을 전시했다.

한편 이날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본지 편집위원장)가 법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출판연구소, 출판산업 위기 극복방안 포럼



한국출판연구소(임흥조 이사장)는 구랍 3일 각계 출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출판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고중언 그레파트너스 파트너 컨설턴트와 김종수 출판유통진흥원 회장의 발제가 있는 후 김현주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은희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최병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유재건 그린비출판사 대표, 한주리 서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고중언 컨설턴트는 '한국 출판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출판업계가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시도하고 전략적인 마케팅 수행을 통해 수출강화 전략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종수 회장은 출판유통과 관련해 유통거래문제로 위탁배본과 중복주문, 중복인쇄, 반품률 증가 등을 꼽았다.

한국출판인회의, 2009 출판인의 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는 구랍 10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출판사 임직원은 물론 작가와 번역자, 편집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출판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09 출판인의 밤'을 개최했다.

올해의 '출판인' 본상 수상자로 유재건 그린비 대표가 수상되었다. 1990년부터 그린비를 이끌어온 유 대표는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에스비아이'(sbi) 편집장 과정 책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공로상은 김태진 다섯수레 대표, 특별상은 한국방송(KBS) '책 읽는 밤'에 각각 돌아갔으며, 편집부문상은 김현숙 궁리출판 편집주간, 마케팅부문상은 김원중 드인돌 상무, 디자인부문상은 강병인 캘리그래피연구소 소장이 받았다.

:: 제지뉴스
Paper news

무림P&P, 새 사명 공표 및 새로운 CI 발표

동해펄프(대표 김인중)는 지난해 11월 2일 일관화공장 기공식에서 '무림P&P'라는 신사



명을 공표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CI를 발표했다. 새로운 사명인 '무림P&P'는 동해펄프가 지난 2008년 4월 무림과 한 가족이 된 후 '무림'이라는 브랜드를 공유하고 펄프부터 종이까지 논스톱으로 생산한다는 Pulp&Paper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국문표기는 '무림피앤피', 영문표기는 'Moorim P&P'이나 대내외 서식 및 언론 등 일반적으로는 '무림P&P'라는 표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림P&P는 이에 따라 새로운 CI를 적용, 회수보일러 벽면을 시작으로 정문 지주사인, 공장

및 사택 외벽 등 모든 사인을 전면 교체하고 각종 서식 및 홈페이지 도메인 또한 변경할 계획이다.

무림, 사랑의 김장하기 행사



무림사랑나눔미는 구립 12일 경남 진주시 문산읍 진주복지원에서 '사랑의 김장'으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무림페이퍼 사회봉사단 '무림사랑나눔미'가 평소 봉사활동을 펼치던 진주복지원에서 김경래 공장장을 비롯, 무림사랑나눔미와 배우자, 자녀 등 100여명이 참가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약 3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전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 밥통 및 반찬통 등을 전달했으며 손소독기와 마스크까지 준비, 저소득층과 불우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무림, 네오클럽21 송년회 개최



무림(대표 전원중)은 구립 7일 서울 삼청각에서 '네오클럽 21 송년회'를 개최했다. 무림의 VIP고객 커뮤니티인 '네오클럽 21' 회원사와 무림의 임원진 30여명은 이날 만찬을 나누고 전통공연도 관람하며 2009년 한해를 되짚어보고 2010년의 지속적인 상호협력도 기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제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구립 9일 거행된 200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사외보 부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제지가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외보 'paper communication'은 창업이념을 극대화하는 한편으로 참신한 연속 기획으로 '종이'와 '한국제지'를 주제로 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 30여개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대회로,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 기관, 단체 등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의 축제다.



한국제지, 울산 환경경영대상 수상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지난해 11월 29일 '2009 울산 환경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제지는 친환경사업장 구축을 위해 대기 및 수질, 폐기물 처리에 과감한 환경투자를 한 것을 비롯해 ISO 14001 인증,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오염물질저감 5-15 자발적 협약, FSC 인증, 스팀 수급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해양투기 폐수 슬러지의 획기적 재이용 개발 등의 활동들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울산 환경경영대상'은 지난 2003년부터 지역 환경보전과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환경보전에 힘쓴 기업 및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다.

해외뉴스

World news



이탈리아 인쇄사,
다이아나 X115 접착기로 효율적 작업

하이델베르그는 이탈리아의 패키징 인쇄사인 Cartotecnica Grafica Vicentina(CGV)가 하이델베르그 사의 다이아나 X 115 접착기를 사용하여 생산량을 올리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테스트에서 다이아나 X115는 복잡한 박스의 제작과 높은 생산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CGV의 Luigi Campagnaro 대표는 “이 제품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이델베르그가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이아나 X 115는 드루파 2008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다양한 제품과 규격을 지원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박스를 제조할 수 있다. 45mm에서 1150mm 규격의 박스 블랭크를 분당 최고 650m의 속도로 처리하여 시간당 20만개 이상의 박스 생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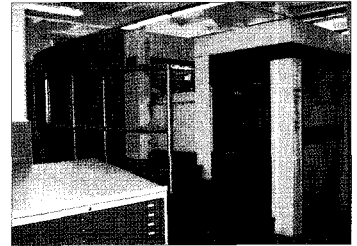


CGV는 출판사, 식품 및 전자 업계의 업체들과 주로 거래하며 지난 2008년에는 1억5천만 개 이상의 박스를 생산했고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Luigi Campagnaro 대표는 “우리는 최상의 기계를 사용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고품질의 제품을 단시간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CGV의 생산 공정은 3대의 매엽 인쇄기와 3대의 다이 커터, 한대의 라미네이터와 3대의 접착기 (신제품 다이아나 X 115, 다이아나 프로 94, 다이아나 165)로 이뤄져 있다.

하이델베르그는 새로운 초대형 규격의 시리즈인 스피드마스터 XL 145 및 XL 162를 매엽 오프셋 제품의 최고급기종으로 공급하고 있다. XL145 및 XL162는 주로 패키징 인쇄와 대형 출판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이 커터와 접착기가 후가공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교육 및 ‘사피라’ 브랜드의 입증된 인쇄 재료가 그 솔루션 구성을 완성하고 있다.

체코 Pharming A.S.사,
하이델베르그 인쇄기로 통합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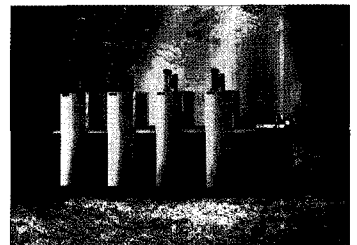
체코에서 선도적인 패키징 제조회사로 꼽히고 있는 Pharming 사는 제약 산업의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성공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식품 및 전기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풀서비스 파트너로서의 입지도 다져가고 있다.



Pharming사는 타사 제품을 사용했으나 하이델베르그 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다이매트릭스 다이커터에 투자했다. Pharming사의 바클리 코미넥(Vaclav Klominek)대표는 “스위스 제조사의 기존 다이커터 5대중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다이커터를 선택할 때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견적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이매트릭스의 튼튼함과 재단의 정확성, 오랜 기계 수명에 매료됐다”고 설명했다. 생산 및 판매 책임자 Josef Knobloch는 “하이델베르그의 다이매트릭스에 견주어 봤을 때 다른 다이커터는 전세대 것이라 할 정도이며 특히 반복 작업에 있어 다른 기계들은 설정시간이 3시간까지 걸린다면 다이매트릭스는 전체 설정 과정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이델베르그는 고객들의 작업준비 시간을 최소화하는 신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 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이매트릭스는 작업 데이터, 즉 포맷, 타입 및 재료 특성 등을 저장함으로써 작업준비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데이터는 반복 작업을 위해 향후 사용될 수 있다. 기계는 새로운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설정되어 필요한 수동 입력을 최소화한다. 하이델베르그는 2~3일 만에 납기를 해야 하는 주문이 일반화되고 있어 짧은 작업 준비 시간에 대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 스피드마스터 CD 102는 타 인쇄기에 견주어 빠른 작업준비 시간의 조건에 최상으로 부응할 수 있어 선택되었다.

하이델베르그, 기후변화협약회의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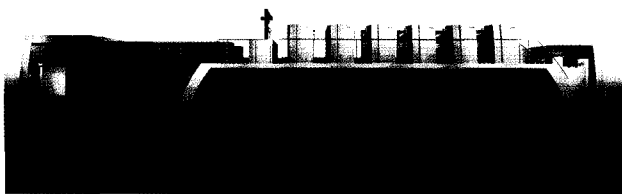
하이델베르그는 환경 보호에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기후변화협약회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랍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기후정상회담에



서 체결될 예정인 새로운 협약은 2012년에 종료될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이어나가게 된다. 협약회의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전 수준에서 최고 섭씨 2도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지금까지 900여개 회사 이상이 발의에 동의했고 정계의 빠른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는 발의에 동의한 회사의 하나로 하이델베르그 사의 기술 및 생산을 책임지는 이사회 스테판 플란츠 위원은 “하이델베르그는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등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언급된 기후 보호 목표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자체 대책들로 그 지원활동을 또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델베르그의 지원 활동은 매엽 인쇄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 측정에 관한 VDMA 지침을 발의하는 역할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 지침은 2010년 초에 VDMA 표준으로 출간되어 에너지 소비와 효율에 관해 인쇄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될 예정이다. 인쇄물(탄소 발자국)과 운용비용 평가를 위한 기후 대차대조표는 또한 일관된 산업 표준의 측정을 요구한다. 스테판 플렌츠 위원은 “표준화된 비교 기준과 정확한 측정 방법이 에너지 소비를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며 하이델베르그의 친환경 인쇄는 자원 절약과 비용 절감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www.copenhagencommuniqu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그, 초대형 규격 인쇄기 30여대 판매



하이델베르그는 상업 및 패키징인쇄 부문에서 30대의 초대형 규격 인쇄기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코팅 유닛을 포함한 첫 스피드마스터 XL 145 (XL 145-6+LYYL)는 현재 독일 패키징 인쇄 회사에 설치되어 다양한 후가공 방법을 적용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Druckhaus Mainfranken사와 온라인 포털 Flyeralarm은 최근 2번째 스피드마스터 XL 145-4를 주문했으며 두 대의 인쇄기 모두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Prinect Inpress Control)을 갖췄다. 분광광도계식 인라인 측정 시스템을

Prinect Inpress Control은 인쇄 속도에 관계없이 가동 중 자동으로 색상과 핀 맞춤을 측정하고 조정한다. 이는 작업준비 동안 기계를 멈추거나 샘플 용지를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한다.

하노버에 위치한 Druckerei Biewald사는 지난해 초부터 스피드마스터 XL 162를 사용해 초대형 규격의 상업 인쇄를 해왔다. 상업인쇄 작업 이외에도 코팅이 가능한 이 7B규격의 5도 인쇄기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작업에서 뛰어난 일관된 색상과 솔리드 인쇄를 자랑한다.

하이델베르그 사의 CEO 베른하르트 슈라이어(Bernhard Schreier)는 “짧은 작업준비시간, 인쇄 품질 향상과 더욱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쇄기 개념으로 하이델베르그가 경쟁사의 초대형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얻고자 했던 목표는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지난 드루파 2008에서 첫 선을 보인 후에 새로운 145와 162 초대형 규격 대에서 약 30여대가 전 세계에 판매되었다. 슈라이어회장은 “특히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패키징 인쇄 부문에서 지난 몇 주간 초대형 규격대의 인쇄기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데 특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Durst사, Glass용 UV Sol-gel잉크 출시

Durst사는 Rho 디지털 UV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 후처리 없이 유리에 직접 인쇄하는 혁신적인 잉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UV Sol-gel잉크인 Vetrosil은 기존의 글라스데코레이션 인쇄물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매우 취약하였던 점을 극복하였으며 프라이머를 이용한 전처리 및 코팅 후처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시간을 단축,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Rho Sol-gel UV잉크는 기존의 UV잉크의 장점인 VOC-Free, 해상도와 내구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CMYK와 백색인쇄가 가능하며 사틴 피니쉬를 통한 에칭 효과를 줄 수 있다. 마이크로큐닉스에서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다.

